

#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준비 올인

### 개최지 주민·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대회 성공개최 한마음으로 머리 맞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관 사회단체 간담회가 지난 2일과 3일 무주군 설천면과 무주읍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대회 개최 170여 일을 앞두고 개최지 주민들과 태권도 관련 유관 기관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보다 적극적인 손길 맞이를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유년 새해 첫 일정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지난 2일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태권방에서 열린 설천면 기관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에는 무주군의회 이영수 의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무주덕유산 리조트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3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는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김남

호 위원장과 무주군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태권도원에서 해맞이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간담회까지 참석하고 보니 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실감이 느껴진다”며 “무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주를 찾아올 각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정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웃들과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6월 22일부터 개최되는 대회 개요를 비롯해 △조직위원회 현황, △개·폐막식 등 주요행사, △운행 및 경기지원, △문화공연 등 대회를 축제화시키기 위한 계획, △관광객 유치대책, △환경정비, △의료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를 전 세계 속에 알리고 상징으로서 태권도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대회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들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대회를 알리는 일부터 친절을 실천하고 집사의식을 가지는 일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170여 일을 앞두고 개최지 주민들과 태권도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완주군, 귀농귀촌세대 2년새 2배 늘어

### 작년 11월까지 1614세대 기록 주택비 등 최대 1150만원 지원

완주군의 귀농귀촌세대가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완주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일 군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2016년 귀농귀촌세대는 1614세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898세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4년에 비해 세대수로는 716세대, 비율로는 79.7% 늘어난 수치다.

또한 1269세대를 기록했던 2015년도보다 345세대(27.1%) 증가했다.

군은 향후 2016년 12월의 실적까지 합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는 최대 1800세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완주군이 지난해 1000세대 개막 등 귀농귀촌 중심지로 자리잡는 것은 지리적 여건이란 이점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의 신축·매입·수리비 500만



원, 1000㎡ 이상 농경지 매입·임차비 250만원, 이사비 50만원 등 최대 1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조성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 5개소 조성, 지역민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 등의 다채로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결실을 맺으면서 군은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7년 연속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완주의 농업융성프로젝트를 통해 능력있는 도시민을 유치, 미래동력 확충을 통한 으뜸도시 완주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귀농귀촌 첫걸음, 진안으로 오세요

### 군, 체제형 가족농원 분양 6일~20일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영화)는 진안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형 가족농원을 분양한다. 입주자들은 오는 3월에 입주하여 1년간 생활하게 되며 시범포장에서 영농체험이 가능하다.

입주 모집 세대는 총 8세대 중 전년도 입주해서 연장한 4세대를 제외한 4세대로 오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입주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군청 홈페이지에 입주 공고 참고)

입주대상은 타 지역 거주자 또는 진



안 거주 1년 미만인 30세 이상의 2명 이상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신청자 대상 사전 설명회와 입주자 선정 워크숍을 통하여 진안에 귀농하려는 정착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선발하게 된다.  
체제형 가족농원은 황토 보드와 편

백투바 등 친환경 내부 마감으로 거주 공간의 쾌적성을 살렸으며, 마이산이 한눈에 보이는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영농기술교육과 조부귀농인 교육, 환경농업대학을 통해서 진안 농민들과 교류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 및 농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서영화 소장은 “지난 2012년도 입주를 시작으로 40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정착률이 70% 이상이 되는 만큼 귀농귀촌의 모범이 되고 새로운 신진 인력의 유입을 통해 진안군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재해예방사업비 133억원 확보

장수군은 2017년 재해예방사업비 13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분재해취약개성지구 63억 원, 원흥재해취약개성지구 48억 원, 사암급경사지붕괴취약지역 6억 원, 강치세천정비사업 7억 원, 왕대재해취약시설의35건 9억 원등 4개 분야 총

133억 원이다.  
또 군은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2016년 아문담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장려상을 수상으로 사업비 4개 분야의 사업을 확보했다는 호평이 뒤따랐다.  
군은 앞으로도 자연재난에 선제적으

로 대응해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해예방에 힘을 쏟았다.  
이같은 안전재난과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앞장

###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진안군은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1월 15일에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로 진안군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이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운행차 정밀검사(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탈소등록하고, 신규차(승합차, 화물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특별블로그

## 장수군, 농촌지도 시범사업 접수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을 1월 2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군에서 2017년 추진하는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지역농업기술 혁신과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으로 군민행복시대 선도를 목적으로 지역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5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시범사업 분야는 ▲창조적 인력양성 분야 ▲6차 산업 활력기반 구축분야 ▲과수 산업분야 ▲친환경농업 ▲원예특작분야 등이다.

자세한 문의를 (T 350 - 5304)이며, 신청절차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 농업기술센터와 해당 지역 농업인상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심사 과정,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평가에 의해 선정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경찰,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는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고위험이 큰 읍말지역과 교량, 터널 및 경사로 등 겨울철 상습결빙 지역의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으며, 특히 신호등과 표지판의 상태와 노후여부를 점검하고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한파로 인해 파손되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강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전준호 서장은 “정기적인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이웃돕기 성금 줄이어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발걸음으로 지난 2일 장수군청에 방문한 스마트술투선(대표 소경용)은 이불 130채 시가로 1,0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재장전주공고동문회(회장 이길재)에서는 현금 1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스마트술투선 소경용 대표와 이길재 재장전주공고동문회 회장은 “장수군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탁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내도록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 만전

### 고랭지 딸기재배 등 연간 10억 8700여만원 투입 예정

무주군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득작목(원예·특작)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한 해 10억 8천 7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과수분야)에 3억 8천 5백만 원,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채소분야)에 4억 1천 7백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지난해(2016년) 문제가 됐던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등의 확산에 대비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2억 3천 7백만 원, 화상병 방제에도 4천 8백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신상봉 소득작목 담당은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무주군의 농업 경쟁력을 기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희망 농가들이 제 때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고랭지 딸기.

술보급 시범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원예·특작작목 분야의 품목별 작목반과 연구회, 영농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이달 1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페이지(www.mjuu.go.kr)를 신청 작목에 대한 경쟁력 및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한 엄격한 현지실사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홈페이지(www.mju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담당 320-2871~3 또는 읍·면 산업담당과 농업인상담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완주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 4개 학과 · 110명... 내달 15일까지 방문 신청

완주군이 2017년 완주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11기 완주농업인대학은 시설딸기과, 소철마케팅, 발효식품과, 시설채소(과채류)과 등 4개 학과로, 11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교육수요도 조사결과와 지역농업특성을 반영했다.

지원자격은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지원학과 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과 희망자이다.

입학원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오는 2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

쳐 2월 22일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완주농업인대학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 과정별로 25~30회, 100~120시간에 걸쳐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농가포장실습 등의 교육이 진행되며, 총 출석일수의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 가능하다.

입학전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290-3275)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욱 농기센터소장은 “완주농업인대학은 완주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농업인을 발굴, 집중교육을 통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관심있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